

정읍시, 2집 건너 1집 '나홀로 가구'

빅데이터 활용 '1인 가구' 특성 분석

10년 새 62.7% 증가...수성동 최다
기초자료 바탕 행정환경 선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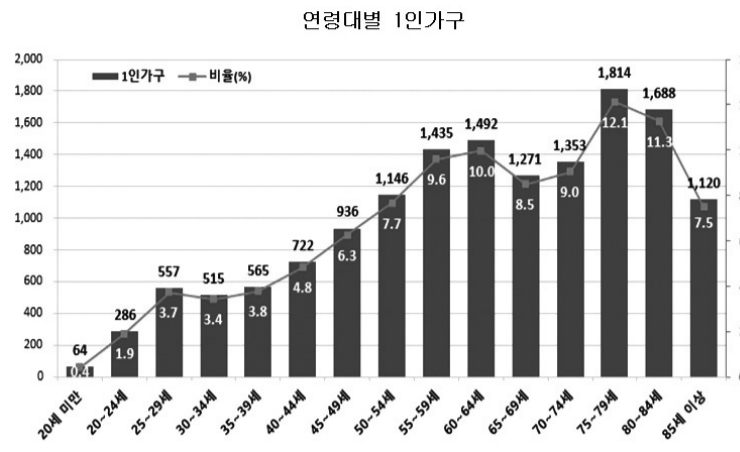
정읍시의 가구 분포가 2집 건너 1집 꼴로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읍시가 '1인 가구' 특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읍면동별·성별·연령별 1인 가구와 1인 가구 주거 형태·혼인상태·교육 정도, 65세 이상 1인 가구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사업의 입안 기초자료 활용과 시정 주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읍시는 분석 결과 2000년 대비 총인구는 17.6% 감소했으나 1인 가구는 62.7% 증가했다고 밝혔다. 3인 이상 가구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읍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2.9%이며 지역별 1인 가구는 수성동이 가장 높고 이어 내장상동, 신태인읍, 초산동 순이다.

1인 가구 거주자 중 연령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대 이상, 60대, 50대 순이었다. 40~65세 1인 가구 비율은 최근 8년간 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 성비는 남성 42.4%, 여성 57.6%로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으나, 최근에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사유를 보면 20~39세는 미혼이 87.4%를 차지했고, 40~64세는 이혼·사별(57.2%), 65세 이상은 사별(91.4%)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 정도는 무학이 31.1%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이 29.1%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65세 이상 전체인구의 26.3%를 차지하며, 성비는 남성 23.1%, 여성 76.9%로 여성이 남성보다 3.3배 많다.

정읍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복지 소외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31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열린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D-1000일 기념 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최병암 산림청 차장 등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정부 승인 축하 D-1000 기념 제막식 허석 시장 "진정한 그린뉴딜 실현"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정부 승인을 축하하는 D-1000일 기념 제막식이 지난 31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최병암 산림청 차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 인사, 대시민 메시지, D-1000일 카운터 제막이 이어졌다.

순천시는 28만 시민 모두가 정원사가 돼 정원을 가꾸고 꽃피운다는 의미를 담은 대형 'D-데이 카운터'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카운터기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역,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도 차례로 설치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8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정부 승인을 축하하고 앞으로 남은 1000일간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원 하나씩을 갖고 그 푸르름 속에서 여유와 희망을 찾고 성장하는 진정한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에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댓글이나 우수 아이디어는 평가를 거쳐 시상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생태관광지 마을주민이 만든 '건강밥상' 눈길

고창 '운곡습지식당' 문 열어 생태관광 활성화·소득 창출 기대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차려내는 건강밥상인 '운곡습지식당'이 문을 열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시설에서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운곡습지식당' 개업식을 했다.

용계마을은 2014년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다. 주민들은 여행객들과 함께 운곡습지트레킹을 비롯해 오디따기 체험, 누에 먹이 주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운곡습지식당 개업을 통해 생태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당은 운곡담 굴치골 뽕나무밭의 누에를 활용한 동충하초 등 마을 내에서 친환경재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담백한 맛의 동충하초백숙, 율담백숙,



고창 생태관광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에 운곡습지식당을 개업했다.

뽕잎돌솥밥, 보리비빔밥 등의 건강한 음식을 선사한다. 더불어 식당 곳곳에 마련된 고창군 농·특산물 구매하고, 습지마을 어르신들의 '청춘일기'도 엿볼 수 있다.

개업식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생태자원을 활용한 운곡습지식당이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도시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고창=김형중 기자 khj@kwangju.co.kr

역사·인구 등 남원생활의 모든 것... '2020 종합선물세트' 발간

남원시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0 남원생활 종합선물세트'를 펴냈다. (사진) 인구정책의 하나로,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책이다.

52쪽 분량의 이 책은 남원시의 역사와 인구, 상징뿐 아니라 결혼·임신·출산, 보육·교육, 귀농·귀촌 관련 모든 정보를 담았다.

교통·문화·복지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지원사업과 최신 생활정보를 수록했다.

대중교통·병의원과 약국·무인민원발급·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도서관·일자리사업·안전·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망라했다.

남원시는 이 책을 읍면동뿐 아니라 유관기관에



계까지 5000부를 배부한다. 시청 홈페이지와 지난달 구축한 남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남도, 국토부에 성삼재 버스 운행 중지 요구

구례 군민 2주째 저지 시위...가치분소송·행정심판 내기로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함양지리산고속의 동서울-구례 지리산 성삼재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 중지를 요구했다.

2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30일 서울 구의동에서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행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국토부 주관의 노선버스 관련 담당자 회의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해당 업체의 버스 운행 중지를 요청했다.

앞서 경상남도 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은 기존의 서울에서 지리산 백무동까지 운행하던 노

선을 변경, 서울에서 지리산 성삼재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구례지역 주민들은 시외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난달 25-26일 이를 연속 전북 남원과 구례의 경계 지점인 도계삼거리에서 버스운행 저지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달 1일과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버스 운행 저지 시위를 벌였다.

버스 운행반대 군민추진위원회는 "묵묵히 살아 가는 구례 사람들을 무시한 국토부는 당장 노선허가를 취소하라"며 "노선 철회까지 가치분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